

U대회 성화 꺼지자 호남발 신당론 불붙어

박주선·김동철 의원 등 광주·전남 중진들 금명 입장 천명

20일 중앙위·당무위 신당 논의 분수령...문제인 결단 주목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막을 내리고 메르스 사태도 종식을 앞두고 호남발(發) 야권 신당론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20일 개최되는 중앙위원회 결과와 혁신위의 정체성 논의는 신당 논의를 촉발시키는 뇌관이 될 전망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내부의 폭풍전야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신당 논의 본격화〉=박지원, 박주선, 주승용, 김동철 의원 등 광주·전남지역 비노 진영 3선 중진들의 움직임이 주목된다. 박지원 의원은 '분당은 상수'라며 친노 진영과 혁신위에 계속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공감할 수 있는 혁신안

을 만들어야 한다는 압박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최고위원직 사퇴라는 초강수를 고수하고 있는 주승용 의원은 사무총장, 최고위원회 폐지 등의 혁신안에 대해 '전대론'을 제시하며 강경하게 맞서고 있다.

박주선 의원은 아예 문제인 대표 퇴진을 혁신안으로 올려야 한다고 신당을 매개로 일선분사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비노 연합 신당론'을 제기한 김동철 의원은 "혁신위가 실패하면 호남과 수도권을 의원 40여명이 신당 창당에 동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며 신당론에 군불을 때고 있다.

특히, 박주선, 김동철 의원 등은 U대회 폐막 이후 신당론과 관련한 정치적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져 주목되고 있다. 여기에 전남도당과 전북도당 여론조사 결과, 아직 탄생하지도 않은 신당이 새정치연합에 비해 지지율에서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 호남 정치권은 더욱 들썩일 전망이다.

〈혁신위와 중앙위=사무총장 폐지 등의 안건을 의결할 20일 중앙위원회 결과가 주목된다. 같은 날 당무위에서는 선출직 평가위원회 구성안을 놓고 진통이 예고되고 있다.

중앙위와 당무위에서 친노와 비노 진영의 한 판 대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막말과 몸싸움 등 극단적인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다. 당내 핵심 관계자는 "20일 중앙위와 당무위 결과는 신당 논의의 본격화를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것"고 말했다.

여기에 혁신위가 '정체성 확립'과 관련

된 혁신안 마련에 착수, 당내에서는 혁신안 계파 갈등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그동안 '정체성'이 공천 심사기준 등으로 활용되면서 비주류에서 공천배제의 수단이라는 비판까지 나올 만큼 계파갈등의 '뜨거운 감자'로 여겨졌다.

이에 맞서 비주류 진영에서는 4·29 재보선 패배에 대한 평가를 요구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계파 간의 정면충돌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

재보선 패배가 중도층 공락 실패라는 점을 강조, 혁신위와 친노 진영의 진보 강화 움직임을 제동을 걸겠다는 의도로 압한다.

이런 가운데 당내 일각에서는 '문제인 결단론'이 흘러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문 대표가 대표직을 내려놓는 결단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지만 현실화 가능성은 미지수라는 평가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박대통령, 與 지도부 내일 회동

당·청관계 회복 될까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원우철 원내대표를 포함한 새로운 여당 지도부가 오는 16일 청와대에서 회동한다. 김 대표는 14일 오전 국회 새누리당 대표실에서 인사차 방문한 현기환 청와대 선임 정부수석과 20여분간 대화한 뒤 기자들에게 이처럼 회동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과 당 지도부 간 회동은 5개월 만이다.

박 대통령은 유 전 원내대표 취임 직후였던 지난 2월10일 김 대표와 유 전 원내대표, 원우철 전 정책위의장 등 원내 지도부를 청와대로 불러 개각과 청와대 개편 등 인적쇄신 문제, 당청관계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눈 바 있다. 또 박 대통령과 김 대표의 만남은 지난 4월16일 대통령 중남미 순방에 앞서 독대를 한 뒤로 3개월 만이다.

이번 회동에서는 중도통합기중후군(메르스)와 가뭄 피해에 따른 추가경정 예산안을 포함, 7월 임시국회에서 각종 법률안 처리 방안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뤄질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번 회동으로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과 유승민 전 원내대표 사퇴 이후 악화한 당청관계 회복 및 당내 계파 간 갈등이 봉합 국면으로 접어들지 주목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새누리 사무총장 '친박' 황진하 의원

제1사무부총장 홍문표 의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4일 후임 사무총장에 수도권 친박(친박근혜)계 3선 중진인 황진하(경기 파주·사천) 의원을 임명했다.

또 공천 관리에서 사무총장 다음으로 중요한 자리인 제1사무부총장에는 충청권 비박계 재선의 홍문표(충남 홍성·예산) 의원을 임명했다.

황 신임 사무총장은 2002년 한국인 최초로 유엔 다국적평화유지군(PKF) 키 프로스주둔 사령관을 역임한 육군 장성(중장) 출신이다.

홍 제1사무부총장은 정통 '당료' 출신으로 지난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지냈고, 원외 시절엔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으로 역임했다. 원외 뒤편 제2사무부총장에도 수도권 원외 당협위원장(수원갑)으로 서청원 최고위원의 측근인 박종희 전 의원을 임명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같은 인터넷 여론을 담당하는 제3부총장은 일단 공석으로 뒀다.

재선인 김영우(경기 포천·연천) 수석대변인은 유임됐고, 신임 남녀 공동대변인에는 충청권의 이장우(대전 동구) 의원과 비례대표인 신의진 의원이 임명됐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새정치민주연합 문제인 대표(왼쪽부터), 박원순 서울시장, 원혜영, 윤호중 의원 등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정책심화과정에 참석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상대로 '서울형 창조경제와 복지성장론'에 대해 강의했다. /연합뉴스

신당 지지율, 郡보다 市지역이 더 높게 나와

새정치 전남도당 '민심' 조사

목포 53.1%·여수 45.5%

40~50대 남성 적극 지지

지난주 실시된 새정치민주연합 전남도당 여론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군보다 시가, 여성보다는 남성, 40~50대의 야권 신당 지지율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목포는 53.1%의 신당 지지율을 보였으며 여수 45.5%, 순천 45.1%, 광양

44%, 나주 36.9% 순으로 나타났다. 시 지역에서 신당 지지율이 높은 것은 정치적 비관 의식이 높은 50대 이하의 연령층이 군 지역에 비해 많이 거주하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로 60대 이상의 신당 지지율은 36%에 그쳤으며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지지율은 31.4%를 나타냈다.

군 지역에서는 영광 46.8%, 장성 46.5%, 해남 46.2%, 강진 44.5%, 완도 43.1% 순으로 야권 신당 지지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신당 지지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곡성군으로 29.1%를 나타냈다. 또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의 지역구인 순천과 곡성의 새누리당 지지율은 각각 6.2%, 8.2%를 기록하는데 그쳐 눈길을 모았다.

하지만, 이정현 의원의 당선은 당의 영향보다는 인물론에 의해 이뤄졌다는 점에서 순천과 곡성의 새누리당 지지율은 의미를 두기 어렵다는 평가다.

한편, 새정치연합 전남도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 정치적 '꼼수' 논란이 일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전남도당이 지난 주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전남 국회의원들과 타 지역 국회의원들과의 의정 활동을 비교하는 설문도 포함됐지만 결과를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야권 신당의 지지율이 새정치연합을 크게 앞서는 결과를 신속하게 알린 것과 극히 대조적이다. 일각에서는 전남 국회의원들에 대한 지역민들의 평가가 시원치 않자 이를 밝히지 않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전남 지역 유권자들에게 불특정한 타지역 국회의원들과 전남 국회의원들을 비교 평가하라는 설문 내용도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천정배 의원, 개혁정치·시민 원탁토론 참석

"양대 정당 과점체제 균열내고

정당 간 경쟁구도 만들어가야"

정치권 재편을 추진 중인 무소속 천정배 의원은 "유능하고 개혁적인 새로운 세력이 등장해 양대 정당의 과점체제를 균열 내고 정당 간 경쟁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3일 서울 가톨릭청년회관에서 열린 개혁정치·시민 등을 위한 원탁토론에 참석, "우리 사회가 총체적 난국인데, 여야를 막론하고 난국을 타개할 능력도 의지도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천 의원은 "여당은 대통령의 식민지를 자임하고, 대통령은 군주처럼 군림하고 있다"며 "야당도 패배가 일상이 됐고 기득권에 취해 무능과 나태에서 벗어나

줄을 모른다. 한국 정치를 전면 재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정치 재구성 방안과 관련, "(정치권의) 미래가 얼마나 가겠는가. 야권이냐 범진보진영에 새로운 세력을 위한 기운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새정치연합 의원들을 만나겠는가"라는 질문에는 "그거야 말할 것도 없는 것"이라고 답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신축 원룸 매매

전대정문 2분! 후문 2분!

북구청 후문 1분!

월세 인기좋은 임대 걱정없음

- ◆ 신축 4층건물(총룸) 13개
- ◆ 1층점포 4층 안집
- ◆ 투룸1개(올임대)
- ◆ 2~3층 원룸(올임대)

매매가 6억 6천(월수익 550만)

①북구 신안동 전대정문 2분 코너 (룸20개) 1층상가2개,룸18개 월수익 700만 매매가 7억8천

② 옹동동 옹동지구 코너 (엘리베이터있음) 룸20개(1층상가2개,룸18개,주택1개) 매매가11억

010-6834-4800
010-6832-9700

2층 상가건물 매매

(나주시 삼영동)

나주혁신도시 10분 나주역 7분

영강고교/영강초교 정문앞 (토205평, 건135평)

1층6칸(올임대), 2층(주택가능)

월수익 200만 매매가 2억9천만

① 북구 우산동 안보화관 상가건물 7층사무실 건물 월수익 950만 매매가 15억

② 수원동 수원지구 4층중층 85평 월수익 180만 매매가 4억천

③ 상무지구 수림오피 6층(13평) 월수익 32만 매매가 5천만

④ 서구 쌍촌동 대운파크 2층(11평) 월수익 32만 매매가 3천800만

⑤ 상무지구 정연오피 3층(30평) 월수익 70만 매매가 1억2천500만

⑥ 동구 수기동제일오피(45평) 월수익 60만 매매가 1억1천만

⑦ 광양 상이아이비트 15평 (상가입장지역) 매매가 4천만

⑧ 상무지구 중층APT(33평) 매매가 2억5천500만

010-6832-9700
010-7384-7800

법원경매 (주)대신경매

수익성 상가 (근린 상가)

1.북구 본촌동 (토 177평, 건199평)감평가 13억8천→최저가 7억7천(식당)
2.광산구 월계동(토42㎡, 건135㎡)감평가 2억→최저가 1억4천(점단상가)
3.서구 차평동 (토44.7㎡, 건257.71㎡)감평가 6억1천→최저가 4억3천
4.광산구 쌍암동(토99평, 건239평)감평가 2억5천→최저가 1억4천
5.동구 금동 (토19평, 건149평)감평가 5억1천→최저가 1억4천6백(9층수영장)
6.동구 금동 (토18평, 건 134평)감평가 4억7천6백→최저가 1억7천(9층상가)

수익성상가 (근린주택)

1.서구 화정동(토150평, 건276평)감평가 12억→최저가 8억4천
2.남구 주월동(토71㎡, 건180평)감평가 4억5천→최저가 4억5천
3.서구 쌍촌동(토63평, 건148평)감평가 4억9천→최저가 4억9천

수익성 상가 (근린 시설, 통건물)

1.북구 운암동 (토66평, 건193평)감평가 7억2천→최저가 7억2천
2.동구 대인동 (토80.2㎡, 건199.25㎡)감평가 24억7천→최저가 14억
3.북구 오사동(토 114평, 건199평)감평가 4억2천→최저가 4억2천
4.광주 소촌동(토31평, 건56평)감평가 1억6천→최저가 1억6천
5.광산구 남산동(토259평, 건150평)감평가 4억8천→최저가 4억8천
6.서구 쌍촌동(170평, 건97평)감평가 4억→최저가 3억2천
7.북구 중흥동(120평, 530평)감평가 13억7천→최저가 7억7천

공장/모텔/주유소

1.광산구 정덕동(공장)토474평, 건478평)감평가 7억1천5백→최저가 7억1천5백
2.전남 장성 북이문(토 2825평, 건1614평)감평가 41억→최저가 15억
3.광산구 쌍암동(숙박시설) (토154평, 건419평)감평가 15억→최저가15억

010-7384-7800

추천 특수물건

1.동구 수기동(근린시설) (토130평, 건319평) (1층,청고, 숙박, 2층~3층, 소매점, 4~5층, 사무실) 감평가 10억7천→최저가 7억5천

2.북구 운암동 (근린시설)토 160평,건283평) 개발기회추천, 투자적합 (1층상가, 음식점, 사무실2~3층사무나) 감평가 8억5천→최저가 5억9천백

3.광산구 남산동(근린시설) (토285평, 건140평) (1층, 제조업, 냉동창고, 2층사무실, 연구실) 감평가 4억8천→최저가 4억8천

4.서구 화정동 (나이트) (토800평, 건2567평) 광천터미널앞 최고위차, 투자적합 감평가 9억7천 → 최저가 9억7천

5.북구 운암동(근린시설)토66평,건194평) (토66평, 건194평) (광업고 북측5층건물) 감평가 7억2천→최저가7억2천

010-6670-9800

경매교육

경매! 이제는 대중화시대!

바로 실전 교육듣고 수익창출가능

매주 목요일, 토요일 (오전반, 오후반)

경매기본 교육부터 실전까지

입찰, 매매, 임대 개발기획까지

원스톱강의

062-382-5500
010-6832-9700